

## 불교가 종교갈등 유발? 교과서 내 불교 왜곡심각

불광연구원 · 불교사회연구소, 연구 결과 공개

‘최악, 최악의 종교갈등을 유발한 종교는?’ 국내 채택을 2위의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그 답은 불교다. 사회교과서 내 불교 기술 왜곡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레반에 의한 바미안석불 파괴 원인이 불교라는 기술부터 우상숭배의 종교로 비하하는 등 그 내용도 다양했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여는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기술제재와 내용’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

‘최악, 최악의 종교갈등을 유발한 종교는?’ 국내 채택을 2위의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그 답은 불교다. 사회교과서 내 불교 기술 왜곡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레반에 의한 바미안석불 파괴 원인이 불교라는 기술부터 우상숭배의 종교로 비하하는 등 그 내용도 다양했다.

중학교 “체험활동에 불교 내용 없어” 손은주 건국중 교사는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기술 제재와 내용’ 발표문에서 15종의 중학교 사회교과서 중 채택 비중이 높은 6종의 사회교과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내용’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내 불교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불교와 관련한 내용은 ‘민족, 종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는 소단원에서 다루는데, 기술 방향이 민족분쟁이나 종교갈등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택을 2위인 천재교육에서 발행한 교과서에 실린 불교 왜곡 내용을 예로 들었다. 김 교사는 “천재교육 교과서 내에는 기독교의 예수상이나 십자가 등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교는 불상 등을 모시는 우상숭배의 종교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달리듬 피해 바미안 석굴 ‘종교갈등 요인’으로 비하 ‘불교계 적극 시정 나서자’

손은주 교사는 현재 교육환경에서는 체험중심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교내용의 핵심적인 가치가 사회교과서 안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참선과 마음수양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방법 및 가치가 사회 교과서 안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불교 왜곡 심각해” 김현수 동대부고 교사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불교기술제재와

초등학교 “불교관련 내용 드물어”

먼저 윤용민 동대여중 교사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불교기술제재와 내용’ 발표문을 통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에는 극히 일부에만 불교관련 내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3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총 8권으로 이 중 역사영역에 해당하는 2권(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을 제외한 6권 중에서 종교관련 내용은 지리·일반사회 영역 뿐이다.

특히 종교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는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에서 종교관련 내용이 소략된 것이 문제를 분석했으며, 이 같은 내용도 대부분 종교분쟁과 갈등으로 기술돼 자칫 종교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불교를 비

## 종헌 개정안 논의 위한 중앙총회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 임시회 6월 22~26일 개최

조계종 종헌 개정안을 재검토·논의하기 위한 중앙총회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는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개회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제48차 원로회의에서 인준 보류된 종헌 개정안이 재논의된다. 조계종 중앙총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조계)는 6월 4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원로회를 원로회의로 존치, 종헌 9조3항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는 문구와 94조4항 ‘사설사당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

계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각각 ‘권리를 제한한다’와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로회의의 제안을 수용해 개정안을 성안하기로 결의했다.

종헌에 소의율을 반영하는 내용과 별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공의를 모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총회 사무처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논의할 의안을 오는 6월 15일까지, 논쟁질의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월 4일 조계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한채 참배를 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불교계 행사와 법회도 연기·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 메르스 확산에 불교계 행사도 차질

감염 확산 우려... 한일 불교대회 등 법회 취소·연기 잇달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불교계 행사들이 대거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는 6월 8~10일 화성 용유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는 6월 4일 회장 자승 스님과 이

사장 도산 스님, 사무총장 범등 정사와 실무진이 회의를 열고 연기를 결정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는 일본 측과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재개회 시점은 가을경으로 예상된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목)은 6월 6~7일 양주 육지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어린이청소년

캠프’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도 6월 13~14일 육지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장애인접반 템플스테이와 14일 부산 불교어린이 청소년연합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포교원 측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면역력이 약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회가 자칫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어

행사를 취소하고 차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의 사찰들도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서울 태고종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은 6월 6일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9월 5일로 공서의 요청에 따라 6월 13일 봉행키로 한 ‘금동미륵대불 회향식’을 연기했다.

이밖에 보림선원 서울 선원과 안성 법등정사 등도 메르스 확산에 따라 정기법회와 영불정진법회 등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 동행, 네팔 지진 구호 성금 10억원 돌파

전국 사찰·단체서 자비 나눔 성과

모금 한달여 만에 이룬 결과 불교 기부 문화 활성화 ‘눈길’ ‘학교 등 기반 시설 재건 초점’

네팔 지진 참사에 대한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6월 2일자로 관련 모금액이 총 10억 원을 넘어섰다.

부처님오신날 직후부터 각 사찰과 단체들의 성금 답지는 계속됐다. 6월 2일에만 군종특별교구가 3900여 만원을, 불병사가 1400여 만원을,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승 스님은 “전 불교계가 종단을 넘어 성금을 모연해준 것은 부처님의 탄생 지인 네팔에 대한 한국 불자들의 애정을 보여준다”면서 “또한 조계종과 동행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기부 문화 활성화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조계종은 모금된 성금을 주요 단체와 논의해 네팔 지진에 대한 2차 구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질 구호는 단순 지원보다는 학교, 병원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재건·복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일 전달식에서 “100만 달러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주요 사찰과 단체와 협의해 7월 중 결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 자승 스님은 “중복되는 지원보다는 최대 피해 지역 한 곳을 지정해 복구·재건을 할 방침”이라며 “학교·병원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새연재 |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15면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 보련기획

###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p>연등 자동 승강 장치</p>	<p>인등시공</p>	<p>만 월 등</p>	<p>극락왕생 등</p>
<p>공 단 등</p>	<p>LED 전구</p>	<p>황 금 등</p>	<p>영 가 등</p>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39번길 27